

2022 국내 미술품 경매시장 연말결산

자료제공_ (사)한국미술시가감정협회

12월 경매 결과까지 포함한 국내 미술품 경매시장의 최종 연말결산이 발표됐다. 집계 결과 연간 매출 규모가 지난해보다 다소 감소한 **약 2360억원**으로 나타났다.

사단법인 한국미술시가감정협회(이사장 김영석)와 아트프라이스(대표 고윤정)가 2022년 국내 미술품 경매시장의 성과를 결산한 결과 올해 **국내 경매사 10곳의 낙찰총액은 약 2360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5년**(2021년 3294억원, 2020년 1153억원, 2019년 1565억원, 2018년 2194억원, 2017년 1900억원)에 비교해 **평균적으로는 상승세**를 유지했지만, **작년과 비교하면 약930억원 정도 감소**한 기록이다.

한국미술시가감정협회의 김영석 이사장은

“올해 상반기에 시작된 **고물가·고금리·고환율 3고(高)**의 복합적인 경기 위축 요인이 미술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미술시장에서 코로나19 여파를 밀어냈던 ‘**이건희컬렉션**’ **기증 훈풍**과 ‘**MZ세대 열풍**’은 증발한 상태이다. 또한 소수의 특정 인기 작가에 대한 **쏟아림현상**이 두드러졌다. 경기 불황이 장기적으로 지속될 전망이다.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환금성이나 안정적 투자가치**에 대한 기대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대상은 국내에서 운영되는 **10개 경매사**(서울옥션, K옥션, 마이아트옥션, 아트데이옥션, 아이옥션, 라이즈아트, 에이옥션, 칸옥션, 토탈아트옥션, 꼬모옥션)에서 **1월부터 12월 말까지** 진행한 온오프라인 경매의 분석결과이다. 참고로 12/27 토탈아트옥션 온라인, 12/29 마이아트옥션 온라인 경매는 일정상 제외되었다.

전체 집계결과 ‘**총 출품작은 30,985점 · 낙찰작 18,468점 · 낙찰률 : 59,6%**’ 등으로 집계됐다. (2021 = 총 출품작: 32,955점. 낙찰작: 22,235점. 낙찰률: 67.47% / 2020 = 총 출품작: 30,276점. 낙찰작: 18,349점. 낙찰률: 60.61% / 2019 = 총 출품작: 25,962점. 낙찰작: 17,279점. 낙찰률: 66.55% / 2018= 총 출품작 : 26,290점. 낙찰작 : 17,175점. 낙찰률 : 65.33%)

다만 지난해 대비 전체 출품작은 1,970점이 적었고, 낙찰률도 7.9% 낮았으며, 낙찰작품은 3,767점 큰 폭으로 줄었음에도 낙찰총액이 930억원 감소하는 수준에 그쳤다. 비록 시장성 중심의 특정한 작가에 쏟아림현상이 강하더라도, 미술품 소비에 대한 전체적인 기대감은 지속되었다고 볼 수 있겠다. 미술품 유통의 활성화를 견인할 다양한 작가군 개발이 관건이다.

또한 **낙찰총액 1위는 야요이 쿠사마가 약 276억 7436만원으로 새롭게 등극**했으며, 낙찰률도 72.96%로 높았다. (2021 = 낙찰총액 1위-이우환 약 394억8770만원, 낙찰률 81.66% / 2020 = 낙찰총액 1위-이우환 약 149억7000만원, 낙찰률 78.95% / 2019= 낙찰총액 1위-김환기 약 249억6000만원, 낙찰률 72.95% / 2018= 낙찰총액 1위-김환기 약 354억7000만원, 낙찰률 81.68%)

또한, **작품별 최고 낙찰가 1위**도 지난해에 이어 **쿠사마 야요이가 64억2000만원(프리미엄 가격 약 75억7560만원)**으로 차지했다.(2021= 쿠사마 야요이 약 54억5000만원, 2020= 쿠사마 야요이 약 27억8800만원, 2019= 르네 마그리트 약 72억4750만원, 2018= 루이스 부르주아 약 95억1400만원)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역시 “쿠사마 야요이와 이우환의 강세”가 지속됐다. 그중에 쿠사마 야요이가 건재함을 과시하며, 낙찰총액과 최고 낙찰가 부문에서도 눈에 띄게 압도한 면이 주목된다. 가령 최고 낙찰가 30순위 중 1~4위가 쿠사마 야요이 작품이었고, 이우환과 함께 17점(쿠사마9점/이우환8점) 약57%를 차지할 정도로 두 작가가 독보적인 강세를 유지했다.

이번 결산에는 국내 경매시장의 전반적인 추이를 살펴보기 위해 5개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세부적으로는 “①경매사별 총 거래량 및 낙찰률, ②경매사별 비중도, ③국내 미술품 경매 낙찰가 30순위, ④낙찰총액 30순위 작가 비교, ⑤장르별 비중도, ⑥KYS미술품가격지수” 등이다. 자세한 항목별 안내는 다음과 같다.

1. 경매사별 총 거래량 및 낙찰률

경매사	낙찰총액(원)	출품수	낙찰수	낙찰률(%)
서울옥션	119,170,171,882	6,250	4,242	67.87
K 옥션	83,515,650,000	10,456	6,133	58.66
마이아트옥션	13,241,678,109	989	618	62.49
아트데이옥션	8,672,640,000	2,417	1,240	51.30
아이옥션	4,444,190,000	4,326	3,015	69.69
라이즈아트	3,729,270,000	2,163	1,229	56.82
에이옥션	1,754,680,000	2,167	1,532	70.70
칸옥션	1,336,350,000	532	339	63.72
토탈아트옥션	103,180,000	1,486	76	5.11
꼬모옥션	22,220,000	199	44	22.11
총합계	235,990,029,991	30,985	18,468	59.6

국내 옥션사 중 낙찰총액 순위는 약1192억원으로 지난해에 이어 서울옥션이 1위를 차지했다. 양대 경쟁사인 서울옥션과 K옥션 두 경매사의 매출은 지난해 대비 약 999억원(서울옥션 약475억원, K옥션 525원)이 줄었다. 이 중에 K옥션이 다른 경매사들에 비해 출품작 수가 월등히 많은 것은 온라인 경매에 집중적으로 매진한 결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경매사들의 너무 잦은 온라인 경매 횟수가 수요자에게 경매에 대한 피로감을 늘리고, 기대심리를 줄일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 아래 표는 지난 5년간 경매사별 기록을 비교한 것이다.

경매사	낙찰총액(원)	출품수	낙찰수	낙찰률(%)
서울옥션	2022 = 119,170,171,882	6,250	4,242	67.87
	2021 = 166,648,733,580	6,957	5,544	79.69
	2020 = 43,414,099,442	4,230	2,929	69.27
	2019 = 82,285,770,520	3,800	2,839	74.71
	2018 = 128,607,543,740	4,008	2,419	60.35
K 옥션	2022 = 83,515,650,000	10,456	6,133	58.66
	2021 = 136,008,527,000	14,157	8,273	58.44
	2020 = 51,738,899,000	14,043	7,352	52.35
	2019 = 57,409,564,000	8,758	5,842	66.70
	2018 = 71,474,360,000	8,471	5,959	70.35
마이아트옥션	2022 = 13,241,678,109	989	618	62.49

	2021 = 9,274,636,483	1,036	682	65.83
	2020 = 7,595,250,000	679	443	65.24
	2019 = 4,938,910,000	566	348	61.48
	2018 = 4,178,150,000	820	523	63.78
아트데이옥션	2022 = 8,672,640,000	2,417	1,240	51.3
	2021 = 8,731,630,000	3,030	1,976	65.21
	2020 = 5,120,720,000	1,890	1,072	56.72
	2019 = 3,238,490,000	1,916	1,238	64.61
	2018 = 7,202,100,000	2,314	1,634	70.61
아이옥션	2022 = 4,444,190,000	4,326	3,015	69.69
	2021 = 4,592,120,000	3,590	2,728	75.99
	2020 = 3,949,460,000	3,783	2,870	75.87
	2019 = 3,805,420,000	4,257	2,764	64.93
	2018 = 3,379,960,000	4,245	2,943	69.33
라이즈아트	2022 = 3,729,270,000	2,163	1,229	56.82
에이옥션	2022 = 1,754,680,000	2,167	1,532	70.7
	2021 = 2,888,210,000	3,367	2,605	77.37
	2020 = 2,718,630,000	4,570	3,249	71.09
	2019 = 3,689,450,000	5,156	3,682	71.41
	2018 = 3,231,330,000	4,213	2,970	70.5
칸옥션	2022 = 1,336,350,000	532	339	63.72
	2021 = 1,232,400,000	532	343	64.47
	2020 = 673,600,000	456	266	58.33
	2019 = 943,450,000	502	293	58.37
	2018 = 1,145,250,000	638	358	56.11
토탈아트옥션	2022 = 103,180,000	1,486	76	5.11
꼬모옥션	2022 = 22,220,000	199	44	22.11
	2021 = 58,430,000	286	84	29.37
	2020 = 80,430,000	625	168	26.88
	2019 = 180,920,000	1,007	273	27.11
	2018 = 114,950,000	1,024	308	30.08
총합계	2022 = 235,990,029,991	30,985	18,468	59.6
	2021 = 329,434,687,063	32,955	22,235	67.47
	2020 = 115,291,088,442	30,276	18,349	60.61
	2019 = 156,491,974,520	25,962	17,279	66.55
	2018 = 219,363,483,740	26,290	17,175	65.33

2. 2022년 경매사별 비중도



경매사별 상위 5순위 비중도를 살펴보면, '서울옥션 50% → K옥션 35% → 마이아트옥션 6% → 아트데이옥션 4% → 아이옥션 2%'순이었다.

서울옥션(50.6→50.5%)의 비중은 근소하게 줄었고, K옥션(41.3→35%)은 크게 줄었으며, 후발 순위인 마이아트(2.8→6%)와 아트데이(2.65→4%)가 눈에 띄는 약진세를 보였다. 하지만 서울옥션과 K옥션 양사가 85%를 차지하며, 절대적 우위 및 쏠림 현상은 여전하다.

3. 2022년 국내 미술품경매 낙찰가격 30순위

순위	작가	작품명	규격(cm)	재료	제작 년도	낙찰가	옥션사	날짜
1	쿠사마 야요이	A-Pumpkin(OTRSSA)	112×145.5	캔버스에 아크릴릭	2014	6,420,000,000	서울옥션	2022.11.29
2	쿠사마 야요이	Statue of Venus Obliterated by Infinity Nets	227.3×145.5,67 ×76×214.5(h)	혼합재료	1998	4,400,000,000	서울옥션	2022.02.22
3	쿠사마 야요이	Pumpkin	53×45.5	캔버스에 아크릴릭	2004	2,200,000,000	서울옥션	2022.08.23
4	쿠사마 야요이	Pumpkin	53×45.5	캔버스에 아크릴릭	2004	1,950,000,000	서울옥션	2022.09.27
5	스탠리 휘트니	Untitled	184.2×216	린넨에 유채	1999	1,800,000,000	서울옥션	2022.03.22
6	쿠사마 야요이	Summer-Stars(QPTW)	194×194	캔버스에 아크릴릭	2007	1,800,000,000	서울옥션	2022.05.24
7	이우환	From Point	227×182	캔버스에 아크릴릭	1982	1,700,000,000	서울옥션	2022.03.22
8	김환기	화실	99.5×72.5	캔버스에 유채	1957	1,700,000,000	서울옥션	2022.03.22
9	이우환	From Point	227×182	캔버스에 아크릴릭	1982	1,600,000,000	서울옥션	2022.03.22
10		십장생도	218.6×481.6	종이에 채색		1,600,000,000	마이야트	2022.11.17
11	김환기	새와 달	60×80	캔버스에 유채	1958	1,600,000,000	K 옥션	2022.12.21
12	이우환	With Winds	161.5×130	캔버스에 유채, 안료	1988	1,400,000,000	서울옥션	2022.04.26
13	이우환	With Winds	181×227.3	캔버스에 유채, 안료	1987	1,350,000,000	서울옥션	2022.06.28
14	이우환	Dialogue	227×182	캔버스에 아크릴릭	2015	1,300,000,000	서울옥션	2022.11.29
15	샤라 휴즈	Untitled	122×107.5	캔버스에 유채, 아크릴릭	2005	1,150,000,000	서울옥션	2022.03.22
16	쿠사마 야요이	Infinity Nets(TSWA)	145.5×112.1	캔버스에 아크릴릭	2009	1,000,000,000	K 옥션	2022.01.27
17	김홍도	백납병	29.8×23 (외 48ea)	비단에 수묵담채		1,000,000,000	마이야트	2022.02.17
18	이우환	Dialogue	146×114	캔버스에 아크릴릭	2017	1,000,000,000	서울옥션	2022.04.26
19	박수근	Under Trees	37.5×26.5	보드에 유채	1961	1,000,000,000	서울옥션	2022.10.25
20	쿠사마 야요이	Pumpkin	22×27.3	캔버스에 아크릴릭	2003	910,000,000	서울옥션	2022.01.25
21	이우환	Dialogue	145×113.8	캔버스에 아크릴릭	2014	900,000,000	서울옥션	2022.05.24
22	이우환	From Line	91×116.5	캔버스에 유채, 안료	1978	900,000,000	서울옥션	2022.06.28
23	하비에르 카예하	Same Old Story	130×116	캔버스에 아크릴릭	2018	880,000,000	서울옥션	2022.05.24
24	김환기	매화와 달과 백자	54.2×37.8	캔버스에 유채	1950 년대 후반	860,000,000	서울옥션	2022.02.22
25	김환기	항아리	50×60.6	캔버스에 유채	1958	850,000,000	K 옥션	2022.05.25
26	미스터	Harajuku Kiss	200×150	린넨에 아크릴릭, 코튼	2015	820,000,000	서울옥션	2022.02.22
27	쿠사마 야요이	Pumpkin	15.8×22.9	캔버스에 아크릴릭, 콜라주	1982	800,000,000	서울옥션	2022.06.28
28	박수근	노상의 사람들	30×27.4	메소나이트에 유채	1962	800,000,000	서울옥션	2022.09.27
29		왕행차도	95×345	비단에 채색		800,000,000	마이야트	2022.11.17
30	쿠사마 야요이	Pumpkin	22.7×15.5	캔버스에 아크릴릭	1991	780,000,000	서울옥션	2022.07.26

낙찰가 기준 1위를 차지한 쿠사마 야요이는 지난해에 이어 30순위 중 3분1인 가까운 9점을 유지했으며, 국내 작가 중 1위인 이우환 역시 8점을 올렸고, 두 작가가 약 57%를 차지했다. 이외에 4점으로 김환기가 뒤를 이었고, 낙찰총액 3순위인 박서보는 없어서 눈길을 끌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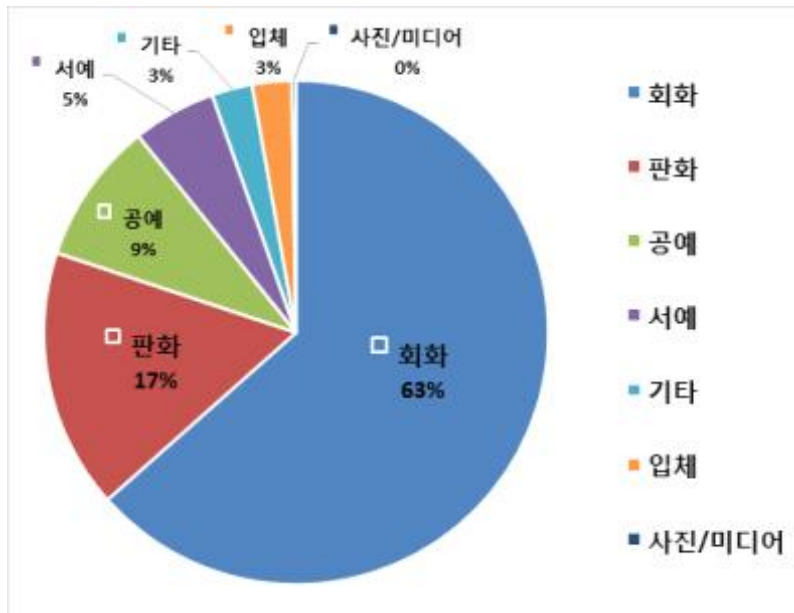
4. 2022년 낙찰총액 30순위 작가 비교

순위	작가명	낙찰총액(원)	출품수	출품수	낙찰률(%)
1	쿠사마 야요이	27,674,360,000	159	116	72.96
2	이우환	25,453,790,000	323	209	64.71
3	박서보	12,344,840,000	219	159	72.60
4	김환기	7,701,260,000	119	63	52.94
5	이배(이영배)	7,117,070,000	175	140	80.00
6	김창열	6,287,220,000	249	160	64.26
7	아야코 록카쿠	5,978,580,000	75	42	56.00
8	이건용	4,529,800,000	160	126	78.75
9	유영국	4,090,100,000	52	47	90.38
10	박수근	3,652,880,000	29	15	51.72
11	윤형근	3,507,800,000	37	29	78.38
12	전광영	3,070,700,000	58	51	87.93
13	스탠리 휘트니	2,826,400,000	21	19	90.48
14	정상화	2,494,500,000	48	26	54.17
15	김종학	2,121,390,000	151	103	68.21
16	요시토모 나라	2,065,590,000	90	54	60.00
17	데이비드 호크니	1,978,130,000	56	38	67.86
18	이강소	1,963,800,000	52	40	76.92
19	김태호	1,913,000,000	112	67	59.82
20	샤라 휴즈	1,894,000,000	3	3	100.00
21	우국원	1,781,700,000	33	28	84.85
22	최영욱	1,760,730,000	81	79	97.53
23	알렉스 카츠	1,600,000,000	114	83	72.81
24	하종현	1,594,740,000	22	15	68.18
25	하태임	1,497,000,000	136	108	79.41
26	이왈종	1,404,760,000	235	112	47.66
27	무라카미 다카시	1,391,200,000	264	179	67.80
28	김선우	1,385,670,000	90	85	94.44
29	우고 론디노네	1,370,790,000	57	38	66.67
30	김구림	1,341,700,000	75	50	66.67

작가별 낙찰총액 30순위에선 지난해 1위였던 이우환을 추월해서 쿠사마 야요이가 약277억원으로 정상을 탈환했다. 2위는 이우환 약255억원, 3위는 박서보 약123억원이 차지했다. 4위 김환기(약77억원)를 박서보가 큰 차이로 추월한 점이 눈길을 끈다. 또한 낙찰총액 30순위 중 국내 생존작가는 15명으로 50% 비중이었으며, 지난해 15위(약35.2억원)에서 8위(약45.3억원)로 꺾충 상승한 이건용의 선전이 주목할 만하다.

이외에 소폭 상승한 작가는 이배(8→5위) 이강소(21→18위) 최영욱(23→22위) 하태임(27→25위) 등이었으며, 정상화(6→14위)와 우국원(10→21위)은 큰 폭으로 순위가 하락했다. 반면 같은 세대인 문형태는 순위에서 밀려나고, 김선우는 28위로 새롭게 진입했다.

5. 장르별 비중도



현재 미술품 경매에서 장르별로 차지하는 비중은 회화 부분이 지난해(55%)보다 큰 폭으로 늘어난 63%이며, 2위는 판화가 17%로 지난해(21%)보다 소폭 감소했다. 결국 회화와 판화를 합친 평면부분이 80%를 차지하며 편중 현상은 여전했다.